



###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㉔ 끝·여래신력품 제21

대승초기 불타관 새해석



지난 호에 이어 나머지 여섯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⑤대지가 모두 여섯 가지로 진동함(六種震動)… 부처님께서 입태(入胎)하였을 때, 태어났을 때, 출가했을 때, 정각을 이루었을 때, 중요한 법을 설하시게 될 때, 열반에 드시게 될 때의 여섯 가지 경우에 3종류는 형태로, 3종류는 음향으로 진동한다고 한다. ⑥이 대화의 광경을 모두가 볼 수 있었다(普見大會)… 모든 생명체가 부처님의 큰 신통력에 의해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⑦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空中唱聲)… 여러 천신들이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사바세계가 있고 그 국토에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중생의 귀에 울려왔다는 것은 곧 마음에 생생히 감득(感得)되었다는 것이다. ⑧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나무석가모니불’ 하고 소리쳤다(咸皆歸命)… 현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잘못된 사상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도 미래에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명(歸命)할 때가 온다고 하는 뜻이다. ⑨아름다운 꽃과 냄새 그윽한 향, 열매, 해 가리개, 그밖에 진귀한 보배들

이 공중에서 사바세계에 흩어져 내려왔다(遙散諸物)… 부처님께 귀의와 감사의 정성을 바치는 공양이다. ⑩시방세계가 통달 무애하게 되어 하나의 불국토가 된다(統一佛土)… 각 나라는 바다에 의해 떨어져 있고 나라로서도 각각 독립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 진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다.

## 석존 입멸 후 ‘見佛’ 삼매 체험중시

### 출가·재가의 평등한 구제 가능성 강조

이상은 여래의 10대 신력이라 하여 여러 가지 신비하고 상서로운 모습이 펼쳐져 있는데 이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틀어서 매듭짓는 것임과 동시에 궁극적인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이상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인생에 대한 용기와 삶의 보람이 융숭습겨 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여기서 초기 대승경전의 성립 배

경과 그 사상을 일별(一瞥)해 보기로 한다. 초기 대승경전은 석존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석존의 생애와 사상은 원시경전에 설해져 전승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재 그것은 원시경전인데 어찌하여 새로운 해석의 틀이 형성된 것인가. 요컨대,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상상하여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 동서(東西)의 문화 교류에 의해서 가져온 전통문화의 흔들림과 새로운 문화 이념의 욕구라고 하는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일부의 불교도가 전통적인 부파불교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종교적 욕구에 응할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스스로의 종교 체험에 바탕을 두고 석존의 생애와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 새로운 종교적 욕구에 응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사상을 창조하여 이

불(無佛)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처님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종교적 관심의 표적이 되어 부처님을 본다고 하는 체험이 증시되었다. 외적인 시점으로는 부파불교와의 대결이라는 정황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대승과 부파불교를 단순한 대립 도식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또 부파불교의 일부에서 대승경전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대승불교의 신봉자들은 재가 신자, 부파불교는 출가의 비구라고 하는 도식으로 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대승불교의 신봉자가 단순히 재가 신자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이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에 재가 신자에 대해서도 출가의 비구와 평등한 구제의 가능성을 개방하는 사상이 있었던 것은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외적인 시점으로는 기원전 4세기 이래 그리스민족의 북서 인도에의 침략과 더불어 생겨난 동서 문화교류의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여래의 기원에 대해 인도에서 서방에 위치하는 이란의 조로아스터(Zoroaster)교의 광명의 신(神) 아후라마즈다(Ahura Mazda)의 영향을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서방 문화의 영향을 우리들의 상상 이상으로 컸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 종교적 욕구의 내용은, 절대적인 구제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부처님이나 대보살의 출현에 대한 대망(待望), 자비에 바탕을 둔 이타행에 대한 강한 요청, 출가와 재가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한 희망 등이다.

(그동안 열심히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나무아미타버 · 아미타유스.)

것을 어디까지나 역사상의 석존이 설한 진실한 경전으로 제작한 것이 초기 대승경전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의 두 가지 시점에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내적인 면으로는 초기 대승경전에 널리 볼 수 있는 견불삼매(見佛三昧: 명상 속에서 부처님을 눈앞에 보는 것) 등의 종교적 체험을 의미한다. 역사상의 석존이 80세로 입멸하여 이미 존재하지 않는 무



###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27 <끝>

표준원과 석가세존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기술사회로 접어들면서 국가 사이의 교역이 활발해지자, 인류는 각종 물리적인 양의 측정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표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1875년 국제도량형국이 세워졌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 단위계(7개의 기준 단위와 2개의 보조 단위로 구성)가 1960년 제정되었으며, 이곳에 단위의 기준이 되는 표준원기들이 보관되어 있다. 한편 불교의 경우 보리수 밑에서 체득한 정각을 바탕으로 입적하실 때까지 대중들에게 펼쳐 보이신 석가세존의 삶 자체가 바로 표준원기이다. 불교 교단은 불멸(佛滅) 100여 년 후 상좌부(上座部)와 대중부(大衆部)의 두 파로 나뉘면서, 상좌부 계통은 스리랑카 ·

다른 종교와 종파의 좋은 수행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인류 평화에 한 몫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필자의 경우, 물리학자의 길을 가면서 종말 이회익 노사 문화에서 선종(禪宗) 최후의 공안집인 ‘무문관(無門關)’에 들어 있는 화두들의 점검을 마칠 무렵, 가슴에 맺혀 있던 모든 의문이 불날 눈 녹듯이 사라지는 체험 이후 항상 있는 그 자리, 즉 집안에서는 아들, 남편, 아버지로, 직장에서는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수로, 참선 모임에서는 수행자인 동시에 법사로 온몸을 투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필자는 이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자(佛)의 표준인 석가세존과 진리(法)의 핵심요체를 담은 ‘무문관’의 저자인 무문해게 선사 및 스승(僧)으로

## 승가·재가 통불교 전통 계승 발전시켜야 취향에 맞는 수행으로 함께하는 삶 찾길

미얀마 · 태국 · 라오스 등에 전해져 발전을 거듭해 오는데 이르고 있다. 대중부 계통은 재가(在家)와 함께 대승불교 시대를 열었으며, 한(漢) 나라 때 중국으로 전해져 몽골 · 티베트 · 한국 · 일본 등 북방에 널리 유포되어 그 민족의 종교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불교계는 승가와 재가가 힘을 모아 원호, 의상, 자장, 의천, 보조, 태고, 서산, 경허 등 걸출한 민족의 스승들이 이룩한 독특한 통불교 전통을 석가세존의 삶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계승 발전시켜야 할 때라 판단된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 각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구심체 역할 및 더 나아가

서 동시대를 호흡하며 필자를 직접 일깨워주셨던 의현종달 노사로 이어지는, 특히 재가수행자들을 위한 간화선 수행 전통의 표준원기의 보존 및 보급을 위해 남은 삶을 투신하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 주변에는 비록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또한 간화선 수행을 하지 않았어도 나름대로의 표준원기를 보존하며 결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스승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훌륭한 스승 문화에서 여러분 각자 취향에 맞는 수행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필자의 절고를 모두 마치고자 한다.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나에게는 남에게 줄 한 법(法)도 없으니, 나의 모든 말은 다만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것을 풀어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대들 제방의 도 뛰는 이들이여! 시험삼아 사물에 의지하지 말고 나와 보라. 내 그대들과 더불어 의논하고자 한다. 5년 10년이 지나도 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풀잎과 대나무에 붙어 사는 정령(精靈)이요 들어우오 도깨비로서, 온갖 풍뎉어리를 어지러이 씹어 먹고 있구나. 이런 눈 먼 놈들은 온 세상 신도들의 보시(布施)를 헛되이 소비하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견해를 짓고 있는 것이다. 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부처도 없고 법도 없고 뒤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같이 엉뚱한 곳에서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눈 먼 놈들은 머리 위에 또 머리를 놓으려 하지만,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냐?

도(道)는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선(禪)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부처를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본성(本性)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말을 따라 가지 않고, 말에 속박되지 않고, 말에 속지 않는다면, 이 모든 말에 그대



로 아무런 허물이나 문제가 없다. 말이 그대로 모두 진실하며, 말이 그대로 모두 여여(如如)하며, 말이 그대로 모두 실재(實在)이며, 말이 그대로 모두 평등하여 한 마디의 말도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도(道)가 그대로 말되면서 도요, 선(禪)이 그대로 말되면서 선의 실천이요,

## 사물에 의지하지 말고 나와 보라

부처가 그대로 말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부처요, 본성이 그대로 말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본성이다. 말이 곧 도(道)요, 생각이 곧 선(禪)이요, 욕망이 곧 부처요, 느낌이 곧 본성이요, 육체가 곧 본래면목(本來面目)이다.

<반야심경>에서 물질이 곧 공(空)이며, 느낌이 곧 공이며, 생각이 곧 공이며, 의지

###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㉔

말하지 않고 말할 줄 알아야

가 곧 공이며, 의식이 곧 공이라고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반야심경>도 없고, 물질도 없고, 공(空)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식도 없고, 나아가 없음도 없어야, 비로소 <반야심경>의 말을 참으로 소화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말에 속고 말에 속박되고 말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도(道)를 찾아 헤매고, 선(禪)을 실천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부처를 만나지 못하여 안타까와 하고, 본성을 보지 못하여 절망하는 것이다. 생각에 속고 생각에 속박되고 생각을 따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욕망이나 욕

체를 따라가고 속박되고 속음으로써 온갖 번잡스런 일들이 있고, 온갖 번민이 있으며, 온갖 세상이 펼쳐진다. 그러나 어떤 것에도 따라가거나 속거나 속박되지 않는다면, 본래 아무 일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풀어야 할 어떤 문제도 없고 채워야 할 어떤 부족함도 없고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도 없다. 따라서 속박되고 속아서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부처의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처의 일을 하며 부처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말하지 않고 말을 하며, 글 읽지 않고 글을 읽으며,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며, 보지 않고 보며, 듣지 않고 들으며, 걷지 않고 걸음을 걸으며, 행동하지 않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할 줄 알면 지금 이 글을 읽음에 아무 허물이 없겠지만, 이렇게 할 줄 모르면 단 한 글자에서도 허물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하겠는가? 김태환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환 선생의 <금강경> 특강 1,2월.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수원경기불교문화원 2,4주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6-456-8957(강보령) http://www.mindtree.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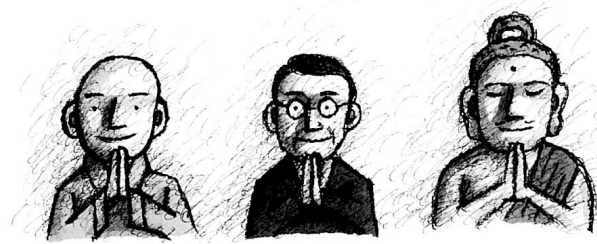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